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재브리크

김재희의 논

관와 양기

지금 당신의 능력은 '풀가동'되고 있습니까?



최은희

날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보니 정말 신기한 사람들도 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뭐하러 구태어 힘들게 도전해? 지금 아주 쾌적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물론 현재 행복하다면 할말이 없다. 그러나 그 쾌적함에 고여있는 소극적인 행복이라면! 나는 빨리 탈출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퇴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풀가동하지 않는 것이다.

백화점 창고에 잔고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팔리지 않는 물건들은 죽은채로 고요하다. 바로 우리 능력의 잔고가 그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

우리 보통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의 5~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 고작, 겨우, 불과 5~10%라니? 억울해서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이제 우리는 100% 풀가동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지금의 안주, 쾌적함을 빨리 포파하라. 무너뜨려라.

자신의 현실, 그 쾌적함을 왜르르 외장창 무너뜨려야 한다. 방치된 능력의 태러는 무죄다. 오히려 권장사항이다. 편안한 현실을 박차고 뛰어나와라. 자신을 안일의 늪에서 구출해내라. 품질 좋은 다이아너마이트로 현실의 안녕을 포파하고 새로운 인생을 리모델링해야 한다. 우리가 타고난 잠재능력은 어마어마하다. 알라바바의 동굴처럼 사용해보지 못한 능력들은 우리 안에 가

득히 잠복해있다.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그 능력들이 가업지 않은가? 그것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오르간 연주에 뛰어난 음악가였다. 그런데 37살의 나이에 문득 깨달았다. 아, 이것은 아냐! 이것은 결코 내 인생이 될 수 없어! 그는 느닷없이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배반하고 기어코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슈바이처를 '신학자' 혹은 '음악가'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의사 슈바이처' 성스러운 그의 삶을 오히려 전부인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가!

'사별'의 글로벌CEO가 된 모린 시계 역시 자신의 현실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여성이다. 유쾌한 다이아너마이트로 편안한 현재를 과감하게 포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 주인공이다. 로스쿨입학시험 시험장에 앉아 있던 그녀는 시험 시간 절반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나는 파리로 가야 해!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한 그녀는 결국 럭셔리 브랜드의 대명사 '사별'의 '글로벌 CEO'를 맡게 되었다.

나하고 친한 바비큐 푸드 시스템 부사장은 49세에 인생의 진로를 바꿨다. 그녀는 잘 나가는 영어강사였다. 수입도 좋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안정된 쾌적함이 싫었다. 고여 있는 물처럼 자기자신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다. 항상 그날이 그날~같은 현실, 관에 박

힌 정체성을 거부하고 싶었다. -총아, 나의 현실을 부수는 거야~ 신나는 도전의 다이아너마이트로 포파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것, 신나는 미래를 창조해보자! 그녀는 액티브한 것, 스티밍 인생을 즐긴다. 그럴 때 자신이 살아있음을 열렬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운전은 배웠는데 아버지가 물었다.-너 운전 할 수 있겠니? 그녀가 당돌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하물며 남이 만들어놓은 자동차를 움직이도 못하는단 살아갈 자격이 없지 않았어요? 그녀는 속담도 바꾸고도 제안한다. 둘다리도 두드리고 가라~! 속담처럼 무기력한 속담이 또 어디 있는가? 둘다리를 두드리면 둘이 아프겠는가? 손이 아프겠는가?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고 그냥 밀어버려야 한다. 남들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날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는 자신을 인생을 직접 연출하는 총감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내 안의 능력을 풀가동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행복디자이너**)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광양항 3단계 1차 부두가 6월 준공됐다. 광양항은 오랜 숙원사업이던 3단계 1차 부두가 완공됨으로써 국제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사업비 3천770억원이 투입된 3단계 1차 사업은 2002년 9월 착수, 5년여 간의 공사 끝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광양항은 5.7km에 달하는 단일 직선 부두 길이, 17m의 수심, 연간 550만TEU의 처리능력과 16개 컨테이너 선석을 갖춘 초대형급 항만으로 거듭나게 됐다. 광양항은 이제 시설 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광양항이 명실상부한 국제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는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국내 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98만6689TEU를 처리, 지난해 대비 2.5%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평평항은 30.6%, 인천항 21.4%, 그리고 부산항

14.1% 등 다른 항만은 고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양항의 물동량이 감소한 것은 열악한 배후부지 여건이 원인이다. 최대 고객이었다던 제1위 선사인 머스크 라인 이 지난해 10월 광양항과 함께 양양항에 한 축인 부산항으로 기항지를 옮긴 것도 다른 항만에 비해 뒤진 배후부지 여건 때문이었다.

광양항은 부두와 배후 물류단지의 지속적인 개발 없이는 국제물류 허브로의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배후 물류부지 활성화 등을 통해 다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급히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양항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동량이 감소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가 양양항체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광양항의 인프라 확충과 인근 배후단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동량 확보가 광양항 활성화의 관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본경선 비전 제시해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주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대선주자 9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 결과,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가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본경선 레이스는 오는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울산, 광주, 전남 등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본격화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본경선주자를 확정했지만 경선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초반 '유령 선거인단' 모 집과 조직선거, 동원선거 등의 논란을 빚었고 예비경선 결과까지 4위와 5위가 바뀌어 발표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었다. 예비경선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기대 이하였다. 특히 선거인단 1만명에 대한 여론조사에 선 무응답률이 53%에 달했다. 응답률이 절반에도 못미친 것은 흥행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본경선에선 투표인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지만 '유령선거인단' 등의 논란이 재연될 경우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본 문제는 본경선 후·개표가 임박했는데도 아직까지 경선방식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손학규, 정동영 후보 등은 본경선에서 여론조사 도입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경선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후보를 이미 확정된 한나라당 집과 조직선거, 동원선거 등의 논란을 빚었고 예비경선 결과까지 4위와 5위가 바뀌어 발표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었다. 예비경선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이런 경선으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 후보를 이미 확정된 한나라당 집과 조직선거, 동원선거 등의 논란을 빚었고 예비경선 결과까지 4위와 5위가 바뀌어 발표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었다. 예비경선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기대 이하였다. 특히 선거인단 1만명에 대한 여론조사에 선 무응답률이 53%에 달했다. 응답률이 절반에도 못미친 것은 흥행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본경선에선 투표인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지만 '유령선거인단' 등의 논란이 재연될 경우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현동



요즘 기상청이 때마침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8월 말까지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으로 시달리더니 예전 같으면 제법 선선해야 할 시기에 또다시 여름이 시작되는 듯 장마 같은 기습 폭우가 줄기차게 쏟아지고 있어 일기예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날이 덥고 습할 때는 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있다. 그렇기에 매년 여름철만 되면 유행성 결막염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대부분 한쪽 눈에 먼저 나타나서 다른 눈으로 옮겨가며 먼저 발병한 눈에서 증상이 더 심하다. 치료는 감기와 마찬가지로 특효약이 아직 없다. 병의 호전은 주로 환자 자신의 면역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눈병에 걸렸을 땀 잘 쉬는 게 약이다. 따라서 치료 목표는 병의 경과기간을 단축해서 2~3차 감염을 막고 증상을 덜어 주는 치료를 하게 된다. 특히 눈병 초기에 아무 안약이나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스테로이드 안약을 함부로 사서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활성을 높여 병을 약

연일 비·습한 날씨 눈병 조심하세요

유행성 결막염은 여름철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전염성이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손이나 수건, 생활용품 등을 쉽게 옮겨주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개화할 시기에는 학생들 간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감염하기 쉬우며 학교로 전염되는 경우도 몇 해 전에 있었다. 이 질환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감염되기 쉬운데 공기중 전염되는 않는다. 대부분 눈곱 같은 분비물을 손으로 비비다가 전염된다. 이 바이러스는 열이나 소독약에도 잘 살균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 목욕탕 같은 데서도 쉽게 전염된다. 또 여름철에 흔한 눈병 중의 하나가 아플로 눈병이라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다. 이 눈병은 지속기간이 유행성 결막염보다는 짧지만 1~2주 정도 간다. 결막염은 특징적으로 빨간색 출혈이 있기 때문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눈이 붓고, 충혈되고, 눈물과 눈곱이 지저분할 정도로 많이 낀다. (<광주안과 원장>)

화시킬 수 있다. 보통 2~4주 정도 지나면 별 부작용 없이 완치되며 드물게 각막 혼탁이 수개월씩 오래가면서 뿌옇게 보일 수 있다. 전염성 눈병이 유행할 때는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눈을 만지지 않도록 해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다. 일단 증상이 있으면 아무 안약이나 함부로 넣지 말고 전문의의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하고 음식·과로를 삼가서 면역성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된다. 눈을 깨끗이 세척한다고 생리 식염수를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가족 중 환자가 있다면 수건 컵 등 개인 위생품을 따로 사용하고 눈병에 걸린 환자는 눈꺼풀이나 눈썹에 붙은 분비물을 손으로 직접 닦거나 눈을 만지지 말고 면봉으로 제거하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안대는 오히려 세균을 증식시키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부종이나 통증이 심할 때는 냉온찜질이나 증산 안화에 큰 도움이 된다. (<광주안과 원장>)

청력 손상 유발 이어폰 사용 자제해야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MP3와 이어폰을 끼고 산다. 그러나 한창 자라는 초등학생들이 매일 MP3와 이어폰을 끼고 다니며 음악을 들을 경우 소음성 난청의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아주 높다. 이어폰의 음악소리가 90dB 이상이면 자동차 경적소리와 맞먹는다고 한다. 이런 큰 소리가 고막 가까이에 들리기 때

문에 청력에 손상을 주는 건 당연하다. 소음성 난청으로 병원에 가는 20, 30대의 젊은층들이 요즘 나이 들어서 노화현상으로 같은 병을 앓는 60, 70대보다 오히려 더 많다니 문제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의 MP3와 이어폰 사용을 적절히 막아줘야 한다. (<김희수·광주시 북구 운암동>)

기고

오승희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활동을 장려해 나가기 위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매년 이 날로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음식에서 고생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위로하는 한편, 국민 모두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는

하지만, 계층 간의 갈등과 반복을 해소하고, 요보호자를 생산적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지는 시혜나 동정이나 아니라 수급권자의 당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필적 역할을 하고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억하자

'사회복지의 날'을 제대로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사회복지의 날이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사회복지 대상은 저소득층만이 아니다. 국민자·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 대상이며, 나아가 빈곤·질병·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까지도 포함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사회를 추구하고 오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아동·노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 협조가 아직 부족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낮다. 사회복지사업이 담당 공무원이나 종사자의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여전하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보수나 근무여건도 열악하다.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광주시에서도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회복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식과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날이 사회복지 종사자·자원봉사자·후원자 등에 대한 신명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복지 현실을 되돌아보고 대안을 찾는 데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교통위반 단속 흥정은 범 집행 방해행위

경찰과 운전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걸 자주 본다. 대개 교통 위반 차량으로 단속에 걸린 차량 운전자들인데 상당수 운전자들은 경찰에게 "잘좀 봐주세요, 또는 선결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한다. 그러다가 "왜 내만 단속하느냐"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익숙하다. 마지막에는 "이

왕이면 산 갈로 끊어 달라"고 끝을 맺는다. 교통단속 현장에서 "산 갈로 해주세요"라는 흥정은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을 흐리게 한다. 그렇다고 범칙금이 적은 스티커를 받부해주는 경찰도 문제다. 단속이 흥정 대상이 되어서 안된다. 경찰이 장사꾼인가. 시민들부터 잘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경찰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해야 되겠는가. (<▲이영성·광주시 동구 대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회고 지급합니다.

無等鼓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57년 6월 26일, 230t급 '지남호'가 부산항 제1부두를 빠져나갔다. '지남호'는 8월15일 인도양의 'Nicobar Anderman' 해구에 도착, 새벽 5시 투승(投繩)을 시작해 다랑어 10톤을 어획한 후 그해 10월3일 돌아왔다. 이 최초의 원양어업 시험조사가 책임지는 여천 출신 남상규 해무청 어로과장이었다. (그는 훗날 '국제어업'을 설립했으며 1975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 'Port of Spain'에서 숨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제동산 업(주 '지남호'가 잡은 1.8m짜리 대물(大物)을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언제 우리 손으로 다랑어를 잡아보나 했는데 드디어 해냈구먼. 그러나 조용 조용히 일을 추진하라고..." 이런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시험조업 결과는 한동안 보도관제에 묶여 국내에 알려지지 못했다고 한다. (원양어업 개발 50년- 국립수산물관리원) 이듬해 9월17일엔 신성수산의 '제16해연호'(138t)가 여수항을 출항, 사모아

에서 다랑어 15t을 잡아 3천414달러에 미국에 수출했다. 이후 화양실업, (주) 동화, 태평양수산(주), 동원산업(주) 등이 버뮤다 해역까지 어선을 내보냈다. 이승만 대통령의 우려대로 일본의 방해 공작은 예상보다 덜 심각했다. 수산청·통상청·운수성 합동 회의를 열고 60년대 초까지 단 책임지는 여천 출신 남상규 해무청 어로과장이었다. (그는 훗날 '국제어업'을 설립했으며 1975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수도 'Port of Spain'에서 숨졌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경무대에서 제동산 업(주 '지남호'가 잡은 1.8m짜리 대물(大物)을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언제 우리 손으로 다랑어를 잡아보나 했는데 드디어 해냈구먼. 그러나 조용 조용히 일을 추진하라고..." 이런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시험조업 결과는 한동안 보도관제에 묶여 국내에 알려지지 못했다고 한다. (원양어업 개발 50년- 국립수산물관리원) 이듬해 9월17일엔 신성수산의 '제16해연호'(138t)가 여수항을 출항, 사모아

다랑어

적도를 중심으로 슬로로제도·파푸아뉴기니아·마다카스카르 해역에 회유하던 다랑어 어장이 여수 거문도 앞바다에 형성됐다는 소식이다. 부산에서 출어한 선망(旋網·루트그물) 어선들은 하루밤에 8천여 마리 이상 잡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형 선망이 없는 전남의 영세 어민들에게 이 다랑어는 '그림의 떡'이다. 원양어선 한 척 없는 지역 현실이 안타깝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가1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대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